

보 도 해 명 자 료

(' 14. 6. 8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싼타페 연비 조사 발표 정부 부처간 알력”
(' 14. 6. 8, 연합뉴스)

1. 기사내용

- ☐ 산업부 “발표 못해” 국토부 “공개해야”
 - 연비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국토부와 달리 산업부는 두 부처의 조사결과가 다르게 나왔으므로 공개할 수 없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☐ 산업부는 국토부의 연비 재조사 결과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고 주장한 바 없음
- ☐ 산업부는 당연히 국토부의 연비 재조사 결과 및 시험기관간 결과 차이에 대해 투명하게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임
 - 조만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토부의 연비 재조사 내용을 상세히 공개할 예정임

※ 관련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

과 장 김권성 (044-203-5390)

사무관 오재철 (044-203-5391)

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